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간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건설산업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건설 기능 인력의 공헌 또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 정보화 등 갖가지 생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활동은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차에도 생산 활동의 속성상 급격한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하부 구조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그에 걸맞은 수준이 못 되어 왔다. 결국 최근 들어 건설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부실 시공 문제와 함께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가 당면 과제로 제기되면서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건설 기능 인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의가 일용직 또는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며 한 직장에서 고정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정한 일자리가 없이 건설 현장에서 뜨내기로 일하며 그저 주어진 시간만 메우는 데 신경을 쓴다면 그들의 손끝에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 시공의 철저성은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며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요원한 바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원래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으로 직업훈련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직업훈련제도는 건설 기능공 양성과 훈련에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생산과 고용 구조에 입각하여 현행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건설 기능 인력의 양성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